

[러시아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벨라루스, 경제자유구역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벨라루스 정부가 6월 북동부 비테브스크 경제자유구역 내에 경제특구를 개설했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 우대와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벨라루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테브스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6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혜택을 내세우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들에는 28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6만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벨라루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차원에서 북동부 비테브스크(Vitebsk) 경제자유구역 내 브레미노-오르샤(Bremino-Orsha)에 경제특구를 개설했다. 정부는 산업과 물류 분야로 구성된 경제특구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최초 9년간 소득세 면제, 20년간 부동산세 면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완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33년까지 배당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특구에서 운영되는 제조업체들은 가전제품, 의약품, 식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학제품, 보석을 생산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은 가공, 도매업,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 통신, 행정, 연구 개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금까지 비테브스크를 포함해 브레스트(Brest), 고멜-라톤(Gomel-Raton), 그로드노인베스트(Grodnoinvest), 민스크(Minsk), 모길료프(Mogilev) 등 총 6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현재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는 28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서 6만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6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제일 늦은 2002년에 지정된 그로드노인베스트가 가장 좋은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4월 1일까지 그로드노인베스트는 7억 4,400만 달러(약 8,800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투자금은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투자금의 29%를 차지하며, 투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그로드노인베스트 입주기업들은 5,200만 달러(약 61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2018년 2억 5,400만 달러(약 3,004억 원)로 액수가 4.9배 증가했다. 그 결과, 2019년 1분기에 그로드노인베스트는 생산량, 수출, 판매수의 성장률 면에서 벨라루스 경제자유구역 중 1위를 차지했다.

민간 투자 장려하며 투자 관련법 개정

벨라루스는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옐레나 퍼미노바(Yelena Perminova) 벨라루스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 여건이 개선됐고,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 및 정보기술(IT) 분야 발전 법안이 비준됐고,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많은 투자 장벽이 해제되었다. 이 밖에도 사업장의 기술 관련 문제도 대거 해결됐고, 기업 발전에 이익을 재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되었다. 퍼미노바 경제부총리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를 최소한 1,000억 달러(약 119조 3,000억 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벨라루스 정부는 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다. 또한 국가투자민영화기구(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투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포함된 투자자 로드맵 초안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출처

- Emerging Europe, Belarus opens special economic area in Vitebsk, 2019.06.25.
- Belarus News, Belarus to continue policy of encouraging private investments, 2019.06.28.
- Belarus News, Foreign investments in FEZ Grodnoinvest at \$744, 2019.06.10.